



광남일보는 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아카데미홀에서 '2026년 제2차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실행력 높일 해법 찾아야”

광남일보는 2일 본사 1층 아카데미홀에서 '2026년 제2차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균 독자권익위원장(세무법인 다솔 누리본점 대표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길철 전남발전연구원장,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정명철 전 광주건축사회장,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발전재단 대표,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 최재훈 호남세무법인 상무지점 대표, 조승우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장,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전 사무처장, 김준수 광주교통공사 경영본부장, 신연범 광주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정일균 법무법인 이노센스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공적 안착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철도망 확충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전략 △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시민 참여 확대와 지역 언론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직면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성균=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경제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1+1이 2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내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정책과 기능을 배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행정기능은 동부청사 등 권역별로 적절히 배분 하되 경제와 산업 기능은 광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교통망 확충과 광역철도 구축 등 접근성이 개선되면 행정적 거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 과정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 있는 인사와 자원 배분이 중요하다. 지역 언론 역시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이길철=전남·광주 통합은 국내외 사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지만 이미 출범한 만큼 이제는 통합의 성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하고, 광주는 중심축, 동부권과 서부권은 양날개 역할을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추진은 광주·전남이 60여 년 만에 맞이한 역사적인 기회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기업 유치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또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역사회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며,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지역 언론 역시 투자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조상열=전남·광주 통합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지역 언론이 공론장을 형성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권과



## 광역교통망·AI·반도체 기반 확충 등 성장전략 제시 문화·교육·행정 아우르는 균형발전·정주여건 개선 시민 공감대 형성·지역 언론 공론장 역할 강화 강조

의회를 무조건 추종하기보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문화예술과 전문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문화는 K-컬처의 근간이자 광주·전남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반도체 산업은 변화할 수 있지만 문화산업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통합특별시가 문화정책을 핵심 과제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명철=전남·광주 통합과 반도체 산업 육성은 누구도 경협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용인 SK하이닉스 국가산단도 착공 이후 기반 조성과 설계 변경 등에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사례가 있는 만큼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도로,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존 노후 산업단지의 리모델링과 전력 인프라 확충 등 선제적인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또 통합 과정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행정 변화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광남일보가 세미나와 연속기회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비전과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신현구=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상생발전재단의 통합을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조직 통합은 단순히 기관을 합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조직문화와 인사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구성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역시 비용 절감만을 통한 성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융합과 인사 안정, 제도 정착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통합 초기에는 승진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인사 운영과 조직 통합을 위한 전환 비용을 적극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될 때 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조기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정회=전남·광주 통합 이후 행정구역 경계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들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소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언론도 통합으로 달라지는 현장 사례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조명해 시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기업들이 AI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대지만, 보안 문제로 핵심 기술 자료를 외부 생성형 AI에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체 AI 플랫폼과 공공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지역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재훈=전남·광주 통합은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통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돼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계획은 광주·전남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 이번 통합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김홍석=전남·광주 통합은 이제 출발 단계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를 보완해 가며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과 산업뿐 아니라 문화정책도 통합특별시의 핵심 과제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문화예술은 꾸준한 관심과 노출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만큼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와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조명해야 한다.

특히 광주와 전남 전역의 문화 콘텐츠를 균형 있게 발굴·보도함으로써 통합 이후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조승우=전남·광주 통합은 행정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통합 이후 각종 조직 개편과 제도 정비,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은 대부분의

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이 처음 시도하는 통합인 만큼 시행착오도 불가피하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언론이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때 통합특별시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준수=전남·광주 통합의 실질적인 성공은 행정구역보다 광역교통망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수도권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교통망이 뒷받침됐기 때문인 만큼 광주와 목포, 여수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역철도와 국가교통망 구축의 당위성이 한층 커진 만큼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지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역에서도 장기적인 교통 비전을 마련하고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지역 언론도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신연범=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광주 시장과 전남지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행정적 부담과 책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합 초기에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보좌할 전문인력과 지원 조직을 적기에 확충하고, 행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조직 규모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출범 초기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향후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행정적 지원과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정일균=전남·광주 통합은 지역 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중요하다. 광주와 전남이 각각 가진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평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통합의 성과뿐 아니라 추진 과정도 중요하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절차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언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공론장의 역할과 함께 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지역 사회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송대용 기자 sdw091@gwangnam.co.kr